

흥행 이끈 극장 간판과 간판화가들 이야기

오락과 예술 사이 극장 간판화가

위경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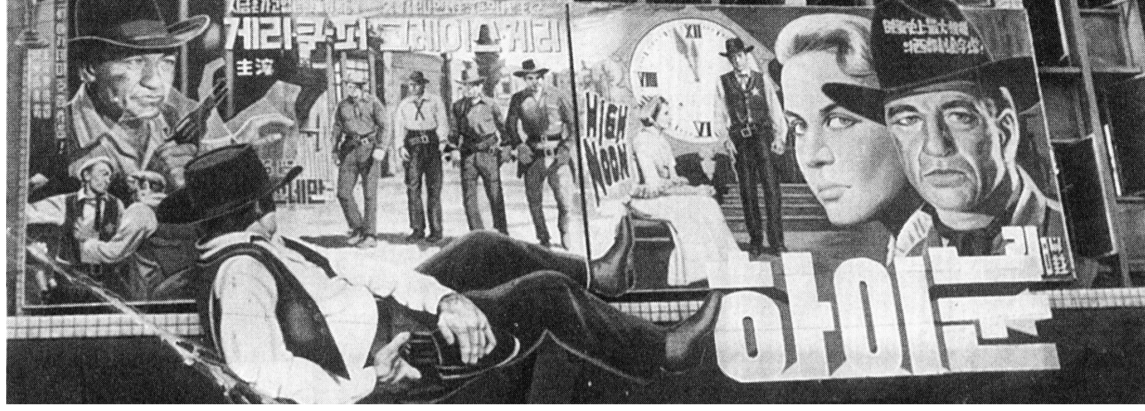
89년 역사의 광주극장을 처음 찾는 이들이 신기해하는 것중의 하나가 밖에 걸린 손그림 간판이다. 영화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었던 극장 간판은 컴퓨터 실사가 도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역 극장문화사를 기록하고, 관련 인물들을 발굴하며 아카이빙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위경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가 이번에는 '간판쟁이'로 불렸던 극장 미술인들에게 주목했다. "극장 운영자가 보기에 극장간판은 홍보 수단이었지만, 간판화가가 보기에 그것은 작품이자 이벤트"였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했다.

이번에 나온 '오락과 예술 사이 극장 간판화가'는 극장 간판과 지역의 간판 화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저자는 신문기사, 출판물 등 각종 자료를 살피고 극장에서 활동하다 현대에 정식으로 등단한 오주치, 박광식 등을 인터뷰했다. 특히 감창중 간판화가와 진행한 구술 증언 채록을 통해 지역 간판 역사와 간판화가의 역동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꼼꼼하게 일상을 기록해온 감창중은 2015년 자서전 '삶의 회상과 흔적-삶의 되새김과 자국'을 발간한 이력이다. 필자는 그와 수차례 만나 자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세대별 극장 간판화가들을 조명했다.

광주지역 간판화가는 일제강점기에 등장해 멀티플렉스 초반까지 활동했다. 그들은 선후배 사이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를 형성해 도제 방식으로 그림을 배웠다. 광



극장 간판화가들은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창이었다. 김창중 간판화가가 그린 '하이논'. <김창중 제공>

주에서는 제국관(동방극장, 무등극장, 무등시네마로 개칭)에서 시작된 계열과 광주극장 화가를 스승으로 삼은 계열이 공존했다.

책에서는 조선미술전람회 유휘 부문에 입선한 실력자였던 간판화가 1세대의 대표주자 김원용을 비롯해 간판 화가에서 영화 제작 현장으로 진출해 '연산군' 등으로 국내외 영화제 미술상을 수상한 정우택 등을 소개한다.

광주 지역 극장 대부분에서 일했던 김창중은 대표 간판화가다.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광주로 온 그는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1951년 광주극장 미술부에 들어가 간판을 그리기 시작한다.

"액션 싸우고 막 칼질하고 뺏고 요런 것은 좀 빨간색을 많이 쓰고, 좀 슬픈 영화는 파란 계통 같은 거를 많이 써. 이제 필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액션 영화 같은 것은 거칠게 그리고 좀 말하지만 연애 같은 것은 부드러운 글씨체로 쓰고."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구술을 통해 그는 극장 없는 동네 노천에 포장을 치고 영화를 상영하던 '로맨바리

의 기억과 미술인 노조를 조직하게 된 사연, 지금은 사라져 버린 중앙극장, 신영극장, 계림극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구술은 극장 간판 제작 과정 및 도구, 업무 체계와 임금, 선전탑 제작을 비롯한 간판 제작 이외의 활동 등 간판화가의 일상을 잘 보여준다. 특히 '애수', '하이논', '아이다', '무장', '언젠가 어머니라 불렀다' 등 국내외 화제작을 그린 1950~60년대 간판과 당시 작업현장을 담은 사진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해준다.

필자는 "이 글은 일상생활 가운데 자리한 영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위경혜 교수는 텍사스주립대 영화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 동아시아 문화학과 박사 과정을 수학했으며 중앙대 영상예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인 최남주', '광주극장', '호남의 극장문화사: 영화 수용의 지역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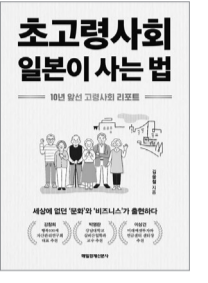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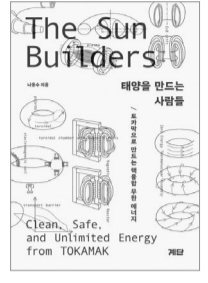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1만 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부의 속성=전작 '레버리지'에 이어 부의 추월 공식을 새롭게 제시한다. 누구나 부의 미래를 이룰 수 있지만 생각이 부를 막고 있다는 발상은 흥미롭다. 세상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명제도 존재하지만, 냉철하게 돈으로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한다. 전 세계 백만장자 3500만 명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비전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부의 추월선임을 알려준다. <다산북스·2만원>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언어학자 김수경의 삶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한다. 그의 언어학은 구조언어학, 역사언어학 등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훈민정음과 음운론 등을 돌아보면서 과거와 현대 언어사를 접목하려는 시도에 기입다. 조선 어사를 현대에 접속시키거나 6·25 전쟁 이후 문제, 리얼리티의 문제를 조선어 규범과 맞물려 해석한다. 한국전쟁기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학문 체계를 일례로 정치와 언어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다. <푸른역사·3만원>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핵융합 에너지는 인류를 밝히는 꺼지지 않는 태양이다. 19세기 말 방사선의 개발로 원자핵 연구가 본격 시작됐고, 20세기를 거쳐 핵물리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탐구가 진척됐다. 전 세계 핵융합 연구소와 ITER, KSTAR 등을 들여다보며 '토키막'의 발전과정을 언급한

다. 토키막은 현존하는 핵융합 장치 중 가장 발전된 것으로 자기력선의 그물망을 활용해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는 핵융합 유도 장치다. <계단·2만8000원>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참조점은 일본이다. 2000년 초부터 이미 고령사회의 맞이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은, 65세 인구가 약 30%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직면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의 신흥경제를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을까. IT택시부터 주문형 교통, 가사 대행 서비스와 45세 정년제까지...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매일경제신문사·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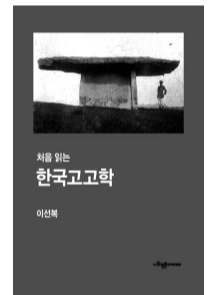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책



한반도 최초 주민 모습으로 풀어보는 고고학 입문서

처음 읽는 한국고고학

이선복 지음



'구석기 시대동안 한반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가질 법한 궁금증이다. 선사시대 연구 권위자인 이선복 전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는 신간 '처음 읽는 한국고고학'에서 '한반도 최초의 주민'으로 한국고고학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고 김원용 교수의 '한국 고고학 개설' 개정 3판(1987년) 이후 40여년 만에 펴낸 한국 고고학 개설서이다.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은 두만강 하류 굴포리 유적과 동해안 서포항 패총,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등지에서 발견됐다. 4만 년 전 갑자기 등장한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을 통해 당시 고인류가 살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석기 시대 유물이 주먹도끼, 돌도끼, 돌화살

촉 등 석기류라면 신석기 시대 유물은 토기류다.

저자는 "고고학은 땅속에 묻힌 인간 활동의 증거를 연구해 과거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며 다양한 발굴유물과 사진자료를 활용해 구석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역사시대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수 안도 패총에서 발견된 북규슈 지방의 조몬 토기와 흑요석을 통해 신석기시대에 남해안과 규슈 북부지역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도 패총에서 발견된 같은 시대 남부 인골에는 해양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심해 잠수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잠수병의 일종인 외이도 골종 흔적이 있었다.

신석기 시대 농경모습은 경남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편에 찍힌 기장 낱알 자국에서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작물이 실제 일상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제한적으로서 단지 자연에서 얻은 음식물을 보충하는데 그쳤을 것"이라며 "주거유적에서 발견되는 생계자료의 구성을 보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식단에서 도토리를 포함한 견과류는 곡류 작물보다 더 중요한 탄

수화물의 공급원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반도의 신석기문화가 이렇게 갑자기 위축되고 소멸하는 것은 동북아에서도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에 (기후변화와 신석기시대의 종식 사이 인과관계)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의 고기후와 고환경 자료 및 고고학 자료의 연대가 축적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밝힌다.

저자는 전남지역에 4만 기가 남아있는 고인돌과 비파형동검, 마제석검 등 유물을 통해 청동기시대 속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저자는 책의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국사교육을 받은 평균적 한국인 중에서도 고고학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아온 모습은 대체로 이리저리했음을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다. 독자들은 저자와 함께 아득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는 장구한 한반도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사회평론이카데미·3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곤충대장 딱정벌레=개미, 잠자리에 이어 딱정벌레 생태 정보를 담은 책. 지구에 사는 100~200만 곤충종에 비해 딱정벌레는 38만 종쯤 된다. 딱정벌레 세밀화 520점과 생태 삽화를 곁들여 그들의 생태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알뜰 볼 때 모두 비슷한 모양이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곤충이 사는 장소와 생김새가 이름에 주는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알려준다. <보리·2만원>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물고기 배 속에 갇힌 늑대가 행복한 바다로 떠나기 위해 힘쓴다. 열심히 배를 만들고 배 밖으로 항해를 하려는데 갑자기 빨간 물고기가 나

타나 늑대에게 말을 건다. 작은 배로는 탈출할 수 없다는 말에 더 크고 빠른 배를 꾸리는 늑대, 책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스픈북·1만7000원>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제강점기 역사=1910~1945년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치 정책을 살펴본다. 한국어 사용을 금하거나 민족말살정책을 위시하며 집에 있는 낫그릇 쇠수저 하나까지 앗아간, 비극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세계에 모범이 됐던 김원봉, 전형필 등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동양북스·2만1500원>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본래적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